셰놀 귀네슈 감독 [사진 = 연합뉴스]셰놀 귀네슈(71·튀르키예) 감독이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는 튀르키예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튀르키예 언론 아크데니즈 게르체크는 18일(한국시간) “귀네슈 감독이 10월 이후 한국 대표팀과 함께 그라운드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귀네슈 감독은 3년 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언론은 이어 “베식타스의 새 시즌 감독 후보 중 하나인 귀네슈 감독은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이전에 일했던 한국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해성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은 “오보라고 보면 된다”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대한축구협회는 제시 마쉬 캐나다 축구대표팀 감독을 1순위로 두고 세부 계약을 협의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연봉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한축구협회가 귀네슈 감독을 차기 감독 후보로 놓고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귀네슈 감독은 2007~2009년 FC서울의 지휘봉을 잡았다.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 자국 리그 프로팀을 이끌던 귀네슈 감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튀르키예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지내기도 했다.